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날마다 강론하니라

말씀 : 사도행전 19:1～20
요절 : 사도행전 19:9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특히 바울의 에베소 개척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의 3차 전도여행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사역지로서 바울이 3 년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복음전도를 한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세계 7 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아데미 여신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딸이자 아폴로의 쌍둥이 자매로서 에베소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이방종교의 중심지인 에베소를 다시 방문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바울의 에베소 전도의 배경입니다. 바울은 이미 2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잠간 에베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것도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변론만 하다가 에베소의 성도들과 작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0,21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행 18:21) 그러니까, 바울이 3차 전도여행에서 에베소를 방문한 것은 에베소 성도들과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이 그토록 더 오래 있기를 간청했지만 이를 뿌리치고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하면서 에베소를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어 번역본에는 18장 21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But bade them farewell, saying, I must by all means keep this feast that cometh in Jerusalem**”(KJV)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다가오는 유월절 명절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전도여행 중에

이런 사례가 또 있는데 사도행전 20장16절에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20:16) 유대인의 3대 명절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전역 뿐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명절을 지켰는데, 바울도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고자 선교여행 중에도 일정을 조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마침내 에베소 성도들과의 약속대로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둘째, 바울의 에베소 전도의 의의(意義)입니다. 19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1)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설명하면서 먼저 아볼로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 지방에 가 있는 동안 바울이 에베소에 왔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에 아볼로가 에베소를 방문했는데 아볼로가 에베소를 떠나 고린도지방으로 간 사이에 바울이 에베소에 이른 것입니다. 18장 후반부에서 누가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아볼로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는 유대인이었고 학문이 많았으며 성경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배운 예수님의 제자였으며, 복음 증거자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아볼로가 예수님을 전하기는 했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볼로가 회당에서 하나님의 도 전하는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어보니 아볼로가 모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세히 풀어 설명해 준 하나님의 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히브리서 6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로 나아갈지니라**"(히6:1,2) 하나님의 도 즉 그리스도의 도는 회개와 믿음과 세례와 안수와 부활과 심판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는데 세례에 관해서는 요한의 물세례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 자세히 가르쳐준 부분은 바로 물세례와 성령세례에 관한 내용이

었습니다. 아볼로가 비록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서 세례에 관한 공부를 하긴 했지만, 그가 에베소에서 복음전파를 하면서도 여전히 요한의 세례만을 말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러 예수님을 믿는 제자 중 몇 사람을 만나 그들의 신앙상태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2,3)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은 아볼로를 통해서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만 배우고 요한의 물세례만 받았던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만 알고 있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은 성령세례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다같이 4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4) 바울은 세례요한이 회개의 물세례를 베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세례에 관해서 전파한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마 3:11) 세례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물세례를 베풀면서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식에게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성령받기를 간절히 원할 뿐만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요7:38,39)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요20:22)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가서 보혜사를 보내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요16:7)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행1:4,5) 이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성령강림의 사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현상 앞에서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다고 하자 베드로가 서서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사건임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차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29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엘2:28,29) 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인데 성령이 임하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을 환상가운데 보여 주셨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겔37:9),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겔37:14) 그리고 에스겔 47장에서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곧 성령이 임하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 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 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

라"(겔47:9～12) 바울이 성령세례의 중요성을 전하자 에베소 성도들이 이를 듣고 주 예수의 이름을 세례를 받은 후 바울이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였습니다. 그들이 성령세례를 받게 되자 그들 역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습니다. 성령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성령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임하는 은사들을 열거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고전12:8～10)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성령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제자의 수가 모두 열 두 사람쯤 되었습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의 의의는 요한의 물세례만 알고 있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령세례를 알게 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성령세례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였을 것입니다. 사실 에베소 성도들이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깊이 알지 못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야 사역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의 약속에 무지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같이 8～10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8～10) 바울은 평소에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 전무후무한 복음전도자였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사도였고, 1 세기 수많은 교회를 개척한 전도자였으며, 신약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할 만큼 영적세계와 하나님의 말씀진리를

섭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복음을 영접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9a)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은혜를 못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였습니다. 아마 그들은 정통 유대인들로서 그들의 유대교 전통과 교리에 벗어난 바울의 가르침에 거부감과 반발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오래된 전통과 가르침에 익숙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해 오면서 형성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정통의 틀을 벗어나면 잘 못된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방어의식과 특권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듣지 못한 설교를 듣거나 내가 알고 있는 바와 다른 내용을 접하게 되면 무엇이 참된 진리인가 고민하고 연구하기 보다는 마음을 닫고 반발합니다. 유대교의 바리새주의는 오늘날 교회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임이 초창기 한국교단으로부터 이단취급을 받은 이유가 바로 십자가 없는 건물에서, 목사 안수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설교하고, 신학교도 나오지 않은 평신도가 성경을 가르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바울도 평신도 설교자였고, 평신도 전도자였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가정교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모임에서는 성경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사로 헌신하고 한국과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데, 기성교회와 다르다는 이유들로 이단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임은 한국교회를 30년 앞서가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서야 옥 한흠 목사님이 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이 한국교회에 파장을 일으키면서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교회마다 평신도 제자사역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에 눈을 뜬 것도 1990년대부터였습니다. 우리 모임의 메시지 방식이 강해설교 방식인데, 1980년대 후반부터 온 누리 교회 하 용조 목사님이 데니스레인 등 강해 설교자들을 초빙하여 강해설교 세미나를 시작하였는데, 그 후 1990년대부터 강해설교가 유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셀 목회, 일대일 성경공부, 제자사역, 세계 선교 등등 우리가 1960년대에 시작한 사역의 모델을 1990년에 와서야 한국교회가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동안 한국교회에 유행처럼 번졌던

내적치유사역도 사실은 우리 모임의 소감에서 이미 다루어지고 있는 사역들입니다. 또 세계 최대의 교회로서 한국 현대교회사의 전무후무한 역사를 기록한 순 복음중앙교회 조 용기 목사님도 한국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순복음교회가 방언을 하고 예배시간에 병을 고치고 성령운동을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순 복음 오순절 교단은 세계에서 최대 성도수를 가진 교단입니다. 그리고, 성령운동은 교단을 초월하여 보편화 된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편협하기로 유명한 일부 장로교단 목회자들은 여전히 성령운동을 이단으로 취급하고 성령의 은사는 초대교회에만 나타난 현상으로서 지금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며 방언도, 예언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가 60년이 되면서 우리 모임도 알게 모르게 전통과 고정관념의 틀 속에 매여서 진리보다는 전통,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형식에 매이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주일 메시지에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얘기하면 대부분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 용조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미 30년 전부터 한국교단에 소개되고 설교되어 온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믿음과 율법에 대한 설교도 힘들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의 설교를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에서 전했을 때도 존 웨슬리 목사님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동일한 메시지를 찰스 피니가 전함으로서 미국의 대각성운동이 일어났는데, 여전히 찰스 피니를 비방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선포된 말씀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로 말씀을 비방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곧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비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습니다. 두란노 서원이라고 할 때 두란노(tyrannos)는 폭군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서운 호랑이 선생이 가르치는 서당 즉 호랑이 서당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란노 서원은 철학자들이 모여서 시원한 아침과 저녁에 토론하고 강의를 하는 장소였는데, 뜨거운 낮 시간에는 강의실을 복음전도자인 바울에게 기꺼이 빌려 주지 않았는가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바울의 이방인 선교사역

에서 중요한 분깃점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주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전파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은 정통 유대교 신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접한 유대인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자 정통 유대교 신자들의 반발과 비방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때 복음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무리들로부터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제자들을 중심으로 따로 장소를 얻어서 성경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시로서는 건물을 임대하기 어려운 여건이라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이후로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바울의 전도사역은 회당이 아닌 장소에서 믿는 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역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회당이라는 유대교의 낡은 전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복음을 담게 되면 부대도 찢어지고 포도주도 버리게 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2년 동안을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성경을 가르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10b) 여기서 우리는 복음전도의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제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가르쳤습니다. 한 두 달이 아니라 2 년 동안을 날마다 성경을 가르친 것입니다. 요즘은 신학대학원에서도 성경을 이처럼 가르치지 않습니다. 겨우 신구약 개론이나 신약신학, 구약신학의 이름으로 성경을 다루는 정도입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한 장 한 장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무려 2 년 동안을 성경공부를 한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왜 전도해야 할 미개척지가 지천에 널려있는 상황에서 2 년씩이나 에베소에 머물며 하나님 나라를 강론한 것입니까? 우리는 전도(傳道)라고 하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하는 것 즉 fishing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도(傳道)의 문자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도, 제자의 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에는 많은 시간이 요구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제자의 도를 가르쳐 순종하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대일 성경공부가 전도이며, 주일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1876년 일본 메이지 정부는 미국을 모델로 국가발전을 도모하고자 당시 미국대통령이었던 그랜트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농과 대학장이었던 윌리엄 클라크 교수가 선발되어 일본에 오게 되었는데, 그가 부임한 곳이 삿뽀로 농과대학이었습니다. 그는 부임한 후 그곳에서 몇 명의 학생들을 모아서 성경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임한지 8개월 만에 다시 미국으로 귀환하였는데, 클라크 교수와 성경공부를 한 학생 중에 내촌감삼이 있었습니다. 내촌감삼은 8 개월간의 클라크학장과의 성경공부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후 일본의 영적 지도자로서 향후 일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 내촌감삼의 제자 중에 김교신은 조선에 와서 복음역사를 섬겼습니다. 둘째, 제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자 아시아에 복음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몇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날마다 성경공부만 했는데도,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누가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바울과 성경공부를 한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윌리암 클라크 교수와 성경공부를 한 내촌감삼이 변화되자 온 일본에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또 내촌의 제자 김교신이 복음을 영접하고 제자로 성장하자 조선 땅에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바울과 2 년간 성경 공부한 제자들이 이제는 나가서 아시아 전역에서 복음을 증거 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에베소에서 2 년 동안 제자들을 따로 세워 날마다 성경을 강론할 때 궁극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1,12 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11,12)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병이 떠나고 악한 귀신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에 얽매이던 자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결국 성령의 은사와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됨으로서 따라오는 열매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성령의 은사들과 능력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전파를 위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

을 전파하라는 복음전파 사명을 주시면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막16:15～18) 그러므로, 성령세례와 성령의 은사들은 궁극적으로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13～20절은 에베소 부흥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적 대 부흥은 항상 작은 사건들로부터 시작되어 요원의 불길처럼 그 시대와 지역을 강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 스게와라는 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처럼 그에게도 망나니 아들이 일곱이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흉내를 내면서 귀신을 섯불리 건들다가 악귀에게 잘 못 걸려 혼이 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에베소 지역에 알려지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7～19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오만이나 되더라**”(17～19) 스게와의 아들들의 사건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심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술을 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회개하여 마술 책을 가져다 불살랐습니다. 그 책값이 무려 은 오만 즉 오늘날 시가로 50 억 원 어치나 되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와 같이 우상과 이방여신의 신전이 있는 지역에서도 놀라운 영적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시대가 어둡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시어 영적 대각성과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1907년 평양 대 부흥의 역사가 있기 전에도 사람들의 심령은 심히도 부패하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심으로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

다. 회개의 물결이 강물처럼 번져감으로서 놀라운 평양 대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미국의 1,2차 대각성 운동도 미국의 영적상황이 최악인 시대에 일어난 역사들이었습니다. 청교도 조상들의 신앙유산을 잃은 미국인들에게 요나단 에드워드와 죠지 휫필드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의 메시지는 미국인들에게 회개의 불을 지폈습니다. 2차 대각성 운동 역시 미국의 기독교가 가장 침체된 시기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영적상황만을 보고 절망해서는 안됩니다. 시대의 죄악상과 영적 무관심에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이고 어둡고 침체된 시대마다 성령을 부으심으로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셨습니다.

결론입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20)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20절에서 에베소 복음역사의 요체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할 때 성령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성령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 들이며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전폭적으로 지배하시며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세례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힘이 있어 어둠을 물리치며 악한 영을 쫓아내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의 영적상황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고 헌신하는 복음증거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